2021. 1. 25 496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헤드라인뉴스 강력 봉쇄 조치 시행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문화·관광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전거 관광' 지원

산업·경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 상공인의 온라인 상점 구축 지원

사회·복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단계적으로 시행
효율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로드맵 수립
州별로 여행 제한 조치 시행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강력 봉쇄 조치 시행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네덜란드 / 사회·복지

네덜란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력 봉쇄(strict lockdown) 조치를 2021년 2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식료품점이나 약국 등 일부 필수 상점을 제외하고 학교, 문화시설 등 대부분의 대중이용시설을 폐쇄. 네덜란드 입국 시 PCR 음성 결과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 후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네덜란드도 1월 6일부터 백신 접종 시행

코로나19 추이

○ 1월 12일 기준 네덜란드 누적 확진자 수는 약 87만 8천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12,400명으로 인구(약 1,728만 명) 대비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매우 높은 편

-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서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12월 14일 대국민 담화[1]를 통해 강력한 봉쇄 조치를 발표
  -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7일) 세일 등 연말연시 쇼핑 인파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어 12월 20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섬
  -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환자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 전반의 과부하를 우려해 내린 조치
  - 이번 강력 봉쇄(strict lockdown) 조치는 2월 9일까지 유지되며, 이후의 변동 사항은 확산 추이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2]

주요 방역대책

○ 12월 15일 강력 봉쇄(strict lockdown) 조치 시행(2월 9일까지 유지 예정)

-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은 1일 최대 2명이며,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외출 시 동행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
  - 인원 제한은 13세 이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제외

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첫 대국민 담화 이후 두 번째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외출 및 모임 자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

2) 네덜란드는 앞서 10월 14일부터 부분적 봉쇄를 시행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모임을 통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봉쇄를 시행. 당초 1월 19일까지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3주 연장

- 비필수 상점(옷가게, 생활용품점, 가구점 등), 문화 및 여가시설(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극장, 카지노, 동물원, 놀이공원 등), 실내 운동 및 목욕 시설(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등) 휴업 조치
  - 슈퍼마켓, 약국(drugstore), 주유소 등 필수 상점과 빵집, 정육점 등 식료품 전문점은 정상 운영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 교회, 모스크 등 종교 시설은 정상 개방하나, 성탄 예배 등 대규모 행사는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
  - 도서관은 대여 및 반납을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열람은 불가)
- 카페, 식당 등 모든 외식 사업장은 포장 및 배달 영업만 가능
  - 앞서 시행한 부분 봉쇄와 달리 투숙객 대상으로 운영되던 호텔 내 식당 역시 폐쇄 조치하였으며, 룸서비스도 중단[3)]
- 근거리 접촉이 불가피한 비의료 직종(미용사, 마사지사, 피부관리사, 타투이스트, 네일아티스트, 성노동자 등) 잠정 휴업
  - 일반의, 가정의, 치과의, 물리치료사 등 (준)의료 직종은 영업 가능
- 강력 봉쇄 시행 다음날인 12월 16일부터는 보육시설과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를 전부 폐쇄
  - 현장실습과 시험 일정 등은 정상 운영하며,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은 등교하여 시설 이용 가능
  - 의료계, 유통업, 대중교통 등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는 자녀를 긴급 돌봄센터(emergency shelter)에 위탁 가능
- 18세 이상 성인은 거리두기 준수 조건하에 최대 2인까지 야외 스포츠 활동만 가능
  - 선수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운동선수, 프로축구 1부 리그와 2부 리그 선수는 기존과 같이 훈련을 할 수 있으며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
  - 17세 이하 선수는 같은 클럽 소속 선수 간 훈련 목적의 경기만 가능

○ **1월 23일 밤부터 2월 10일 오전까지 '야간통행금지' 조치 시행**

-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필수적인 이동을 제외하고 모든 통행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95유로 부과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소지하면 통행 가능
  - 통근하는 경우(추가적으로 고용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본인이나 반려동물에게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동행이 필요한 경우
  - 해외로 출국하거나, 네덜란드로 귀국하여 공항 이용 및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3) 외식 등을 목적으로 호텔에 묵는 투숙객이 늘어나면서 내린 조치

- 반려동물(개)을 산책시키는 경우 1인 통행 가능

•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야간통행금지 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음
  - 조치의 실효성에 따라 이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해외여행 관련 조치 사항**

• 12월 29일부터[4] 비행기, 기차, 버스, 배편을 이용해 네덜란드로 들어오는[5] 13세 이상 모든 입국자[6]는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네덜란드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검사[7]여야 하며, 음성 판정, 증상 유무,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입국 후 10일간은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

•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3월까지 해외 일정 계획 및 예약을 삼갈 것을 권고

○ **당초 계획보다 이틀 빠른 1월 6일부터[8]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

• 기존에 접종 대상자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던 정부안을 7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응급병동 및 중환자실(ICU)에 근무하는 의료진 3만 명을 긴급 접종 대상으로 추가 (세부 내용은 다음 표 참조)
  - 기존 정부안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연령 및 기저질환을 반영한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
  - 의료계 종사자[9]를 우선순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수정

•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네덜란드 정부가 사용하는 본인인증(DigiD) 시스템상에 백신 정보를 기록하고 추후 인증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전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백신 효과 및 부작용 등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21년 7월 1일까지 네덜란드 성인 인구 1,2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물량 확보
  - 이 중 800만 명분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社와 계약한 것으로, 유럽의약품기구의 심사 과정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4)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에게는 해당 조치를 앞서 12월 23일부터 적용
5) 셍겐 조약과 무관하게 네덜란드 국경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여정의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6) 네덜란드 국적자 포함. 다만 유럽연합에 의해 '안전' 국가로 분류된 한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발 입국자는 면제
7)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8)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백신 접종이 열흘가량 늦게 시작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음
9) 그 외 교사, 경찰관 등 기타 필수 직군 역시 정부에 우선권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변경사항은 없음

접종 우선순위		내용
1순위	A	요양원 및 재활시설 거주자
	B	요양원, 재활시설, 방문 의료종사자
2순위		60세 이상 시민, 고령자부터 차례대로 접종(기저질환 유무 무관)
3순위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미만 시민
4순위		2순위와 3순위 대상 시민의 돌봄 노동자
5순위		코로나19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계 종사자
6순위		기타 의료계 종사자
7순위		18세~60세 일반 시민

시기		내용
2020년	12월 21일	유럽의약품기구(EMA) BioNTech·Pfizer社 백신 승인
2021년	1월 4일	1순위 B 대상자 사전 등록[10]
	1월 6일	백신 접종 시작(2회분 중 1차 접종)
		1순위 대상자 및 응급 병동 종사자 긴급 접종
		유럽의약품기구(EMA) Moderna社 백신 승인
	1월 8일	변경 전 백신 접종 시작일이었음
	1월 11일	지역공중보건국(GGD) 세 곳[11]에서 우선 접종
	1월 18일	전국 GGD 25곳에서 접종
	1월 27일	2차 접종 시작(2회분 중 2차 접종)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21/01/12/nederland-blijft-tot-en-met-ten-minste-9-februari-in-lockdown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20/12/24/negatieve-pcr-testverklaring-ook-verplicht-in-internationale-bus-en-trein-en-op-schepen

https://www.rijksoverheid.nl/documenten/kamerstukken/2021/01/04/kamerbrief-over-covid-19-vaccinatiestrategie-update-stand-van-zaken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10) 먼저 승인된 BioNTech·Pfizer社 백신의 경우 보관 및 운반이 까다로워 요양원, 재활시설 등에서 대규모 접종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공중보건국(GGD)으로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먼저 접종

11) 로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 공항 지소), 위트레흐트(Houten 지소), 브라반트州(Veghel 지소) 등 세 곳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전거 관광' 지원

일본 교토市 / 문화·관광

교토市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에 힘쓰는 가운데, 밀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자전거로 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 '자전거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교토 관광 공식사이트에 '교토 자전거 관광 가이드'를 개설

배경 및 목적

○ 교토市는 일부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관광객이 도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균형 잡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9월부터 교토 관광 공식사이트 '교토 관광 Navi'(京都観光Navi)를 개설·운영

- 교토 관광 Navi에서는 관광지의 혼잡도를 나타내는 '관광 쾌적도' 예측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방문 시기·시간·장소의 분산을 꾀함

○ 市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토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맘 놓고 교토를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 쾌적도' 예측결과 제공 페이지를 개선

- 시간대별 관광 쾌적도 예측 표시 지역·기간을 확대한 데 이어, 지역 내 관광지 정보를 충실화하고 실시간 영상까지 제공하는 '교토 관광 쾌적도 맵'(京都観光快適度マップ)을 공개

○ 또한 市는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하자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고민하고 있으며, 밀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교토 자전거 관광'을 적극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교적 용이한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야외 콘텐츠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교토 관광 Navi' 내의 '교토 자전거 관광 Navi'(京都よくばり自転車観光ナビ) 메뉴를 새롭게 단장하고, '교토 자전거 관광 가이드'(京都自転車観光ガイド)를 개설(다음 그림 참조)

주요 내용

○ **교토 자전거 관광 가이드에서는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는 구역을 소개**

- 기존 교토 관광 Navi에서는 5개 구역을 소개하였는데, 새롭게 꾸며진 교토 자전거 관광 가이드에서는 2개 구역을 추가해 7개 구역을 소개
  - 오르막이 없는 구역 등 자전거로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을 소개함으로써 교토 관광의 만족도 향상을 꾀함

○ **각 구역에 있는 맛집 정보나 관광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자전거 관광 추천 코스 기사나 동영상 등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맛집 정보는 일본 최대 맛집 정보 검색 사이트 '구루나비'(ぐるなび)와 제휴를 맺고, 지역 내 맛집 정보를 지도 형식으로 소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언 사업소 스티커'(宣言事業所ステッカー) 부착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개
- 7개 구역의 맛집이나 관광시설 등을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는 효율적인 코스를 기사 형식으로 소개
-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교토市 내 자전거 관광의 매력을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해 홍보하고, 7개 구역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림

○ **관광객이 지켜야 하는 자전거 이용 관련 규칙이나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곳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토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함**

-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관광을 지원하고자 자전거 이용 관련 규칙,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곳이나 자전거 대여점 정보 등을 제공
  - 자전거 관광 목적에 맞는 자전거 종류도 추천

정책 평가

○ 교토市의 자전거 관광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해소에 이바지하고, 일상의 멈춤 속에서 지역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78421.html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38.000059523.html

https://ja.kyoto.travel/comfort/

https://ja.kyoto.travel/bicycle/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 상공인의 온라인 상점 구축 지원

캐나다 토론토市, 캘거리市 / 산업·경제

캐나다 토론토市에서 시작된 샵히어(ShopHERE)와 낫 아마존(Not Amazon)은 지역의 영세 상공인과 아티스트 등이 디지털 입지를 구축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현재 캐나다 전역의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이 플랫폼은 구글(Google)의 100만 달러 규모 투자와 각 도시의 지원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영세 상공인의 판로 모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시작됨**

-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가 온라인 상거래의 큰 촉매 역할을 함
  - 코로나19의 대유행 때문에 처음으로 온라인 구매를 제공하기 시작한 소규모 업체가 캐나다에서 약 152,000곳에 달함

○ **주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다음과 같음**

- 구글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샵히어(ShopHERE)
  - 지역 영세 상공인이 디지털 상권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해 시작
  - 2020년 5월 토론토市와의 협력하에 시작
- 낫 아마존(Not Amazon) 웹사이트
  - 지역사회의 독립 소매업체들이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 2020년 11월 말에 토론토를 기반으로 등장

주요 내용

○ **샵히어(ShopHERE)는 정부와 테크기업, 지역 예술가 등의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상생을 모색**

-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가에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

- 市의 자금 지원으로 MBA 학생 등이 소규모 기업과 예술가를 위한 온라인 상점을 제작
  - 관심이 있는 소규모 기업은 ApexAlberta.ca/Shophere에서 신청 가능
  -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기업 및 예술가들이 제품 및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 등 17시간 이상의 실무 지원을 제공
- 구글 캐나다는 이 프로그램을 캐나다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자체 온라인 상점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토론토 상공인연합, 샤피파이(Shopify) 이커머스 회사, 신용카드사, 마이크로소프트사, 마그넷 창업 플랫폼 및 요크 대학 비즈니스스쿨을 포함한 여러 커뮤니티 및 기업 파트너의 지원을 받음

○ **샵히어는 온타리오州의 토론토市를 시작으로 앨버타州의 캘거리市와 메디신햇市에 순차적으로 도입**

- 캘거리市의 운영 방법
  - 市는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지역 소규모 기업과 예술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 최대 90개 기업과 아티스트가 이용하도록 지원
- 메디신햇市의 운영 방법
  - 2020년 7월에 시작된 이후 77개의 지역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
  - Medicine Hat & District Food Bank[1]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 온라인 기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부 상품을 패키지화함

○ **낫 아마존(Not Amazon)은 토론토市를 시작으로 다른 도시로 확대**

- 거대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잠식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오프라인 상점의 위기를 타개하고 아마존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이 토론토에서 시작
- 지역사회의 독립 소매업체들이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됨
- 2020년 11월 말에 토론토市를 기반으로 등장한 이 사이트는 점차 지역을 넓혀 갔고, 12월 현재 서부 밴쿠버市와 캘거리市, 동부 해안 핼리팩스市로 확대됨
- 서점, 아기용품점, 애완동물용품점, 꽃집, 와인 가게, 음식점 등 100개가 넘는 지역 상점이 입주하여 성업 중

1) 1987년 설립된 캐나다의 자선단체로,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식재료 및 공산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음

[사진 1] 스마트폰을 통해 샵히어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출처: ShopHERE 공식 웹사이트

정책 평가

○ 구글의 투자와 각 도시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은 더 많은 중소기업과 예술가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기술 교육을 받고 영세 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https://chatnewstoday.ca/2020/09/25/local-small-businesses-see-growth-thanks-to-shophere-program/
https://chatnewstoday.ca/2020/11/17/shophere-website-success-for-medicine-hat-businesses/
https://programs.digitalmainstreet.ca/shophere-signup
https://www.not-amazon.ca/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단계적으로 시행

독일 / 사회·복지

독일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독일 전체를 봉쇄하는 하드 록다운(Hard-Lockdown) 조치를 시행.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

코로나19 추이

○ 독일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어 2020년 12월 이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만 명을 초과하는 날들이 많아짐

- 2021년 1월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5,000명
-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10만 명이고, 약 5만 명이 사망

하드 록다운(Hard-Lockdown) 조치의 주요 내용

○ 메르켈 총리는 2020년 12월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들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독일 전체에 대한 전면 봉쇄인 하드 록다운(Hard-Lockdown) 조치를 州 총리들과 함께 결의

○ 제한 조치 내용

- 최대 2가구, 최대 5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접촉을 제한
  -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집계에서 제외
  -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4일에서 26일까지는 제한을 완화. 한 가구당 가까운 가족 최대 4명이 추가로 모일 수 있도록 허용[1)]
  - 가족 모임 직전 5~7일간은 모임을 자제하고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
-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상점의 영업을 금지
  -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점: 슈퍼, 은행, 우체국, 약국, 위생용품 판매점, 안경판매점, 보청기판매점, 배달 및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및 음료 판매업체, 육아용품 판매점, 주유소, 자동차 및 자전거 수리점, 청소업체, 빨래방, 신문판매점, 반려동물용품 판매점 등

1)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은 우리나라의 명절 대이동 시기와 유사하며,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하드 록다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완화

- 학교, 유치원 등의 대면 수업 중단
  - 교육기관을 폐쇄하거나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긴급돌봄 서비스 및 홈스쿨링 실시
  -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급휴가나 자녀 긴급돌봄을 제공
- 직장에서 휴가 또는 재택근무 시행
  - 고용주는 휴가 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 식당, 주점 운영 중단 및 공공장소 음주 금지
-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모든 집회 및 외부 모임 금지, 연말연시 폭죽 판매 금지, 폭죽 사용 자제 권고[2)]
- 종교시설은 집회 허용
  - 마스크 착용 및 1.5m 거리두기 조건으로 허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주요 내용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로 코로나19 백신을 단계적으로 접종할 계획**

- 2020년 12월 21일 유럽의약품기구(European Medicines Agency)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12월 27일부터 독일에서 예방접종을 시작
- 2021년 1월 말까지 3~4백만 개의 백신이 공급되며,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州에 백신을 배분
  - 독일은 1년간 BioNTech사에서 백신을 받을 예정이며, 다른 회사의 백신이 승인되면 독일은 총 3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연방 보건부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 순서가 명시된 시행령을 제정
- 접종 1순위
  - 80세 이상
  - 노인 입원 및 요양시설에서 치료·간병·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시설 종사자
  -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시설 종사자
  - 코로나19 백신 센터 및 감염 방지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의 직원
  - 코로나19 중증 환자나 고위험군의 환자들이 있는 의료시설 직원. 특히 종양 및 이식 분야의 종사자
- 접종 2순위
  - 70세 이상

2) 독일에서는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폭죽놀이를 즐기는데, 이번에는 폭죽 판매 및 사용 제한을 권고했음

-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 다운증후군 환자,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자
- 위의 2순위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자
- 임산부와 접촉하는 자
- 정신장애인 입원시설에서 일하는 자, 정신장애인을 정기적으로 치료, 간병하거나 돌보는 자
-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자. 특히 정기적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의사 및 직원, 헌혈 또는 코로나19 검사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 시위 장소와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 투입되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및 안전 요원
- 공중보건 서비스 및 병원 인프라 관련 종사자
- 난민 및 노숙자 시설에서 거주하는 자 및 관련 시설 종사자

• 접종 3순위
- 60대 이상
- 다음과 같은 질병이 있는 자: 비만,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에이즈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당뇨, 각종 심장 질환, 뇌졸중, 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또는 천식, 자가 면역 질환 및 류머티즘 등
-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아 코로나19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실험실) 직원
- 州정부, 지자체 및 헌법기관, 군대, 경찰, 소방대, 재난보호청 및 인명구조대, 법원 등 국가기관 종사자
- 약국 및 제약업, 공공서비스업(전력, 수자원 등), 폐기물 처리업, 식품업, 운송업, 정보기술 및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자
- 교사 및 보육 교사
- 위험한 근무환경 혹은 생활환경에 놓여있는 자

• 이들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는 연락이 취해지며, 각 州정부에서 예약관리를 함
•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무료이며,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
• 예방 접종의 부작용은 폴 에를리히 연구소와 유럽의약품기구에서 확인하고 평가
- 부작용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www.nebenhaben.bund.de)를 통해 연구소에 보고할 수 있음

• 예방접종의 성공 여부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Koch-Institute)에서 조사할 예정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fallzahlen-coronavirus-173821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informationen-impfung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coronavirus/faq-covid-19-impfung.html#c19742

https://www.dw.com/de/corona-bundeskanzlerin-angela-merkel-argumentiert-emotional-und-energisch/a-55882911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효율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로드맵 수립

인도 델리 NCT[1] / 사회·복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에서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의료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의료종사자 대상 교육과 함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점검하여 백신 접종 로드맵을 수립

코로나19 추이

○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20년 12월 이후 2만 명 이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델리 NCT 지역도 최근 1천 명 이하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진 상황으로 판단

- 2021년 1월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1,000명 수준
- 인도의 코로나19 회복률은 95%를 상회하며, 회복률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

○ 델리 NCT 지역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3차 대유행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이 강조되는 동시에 백신 주요 생산국으로서 백신 확보에 박차를 가하며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 중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인도는 대부분의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해제한 상황으로, 최근 급증했던 델리 NCT 지역의 확산세를 개인방역의 강화를 통해 급한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선제적인 선별검사 중심의 부가적 방역 지원으로 확산세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 2020년 12월에 공공부문 비필수 종사자의 최대 50%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명령하였고, 민간부문의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권고
-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2천4백 루피(약 3만 6천 원)에서 8백 루피(약 1만 2천 원)로 계속 낮추어 검사 부담을 완화
- 코로나19 무료 방문검사를 위한 이동용 검사차량을 지역에 보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접근성을 강화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검사 대상자가 큰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진료를 위한 무료 전용 구급차 예약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여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

백신 접종의 주요 내용

○ **인도 중앙정부는 2021년 1월부터 3천만 명의 의료종사자와 방역활동 종사자, 2억 7천 명의 50세 이상 중장년층 등 총 3억 명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

- 임상시험 단계 이상의 백신이 인도산 3개를 포함하여 8개 백신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승인을 통한 빠른 공급보다는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토한 뒤 각 지방정부와의 협의하에 백신 접종을 1월부터 시작
- 백신관리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백신 보급 관리를 수행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모든 가능한 인원을 백신 접종에 투입

○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근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종사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활용 가능 자원을 점검**

-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의료진이 지역 내 병원 400여 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안전성, 물류관리, 접종 대상자 등 백신 접종 관련 교육을 3일간 진행
  - 이번에 교육받은 400여 명의 의사가 병원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은 의료종사자들을 백신 접종에 참여시킬 계획
-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로 지역의 접종 대상자 3천9백 명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의 의료종사자가 선정되었고, 이후에는 노년층 중심으로 우선 접종
- 백신이 권장 온도 내에서 보관 및 운송될 수 있도록 라지브 간디(Rajiv gandhi) 병원에 구축 중인 국영 냉장시설을 지역 보관본부로 활용하며, 저온유통체계를 갖춘 609개 병원과 보건소로 백신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
- 7백여 명의 의료담당자를 유통 부문에 배정하여 백신의 안전한 보급을 위해 노력

정책 평가

○ **코로나19 확산세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확진세를 억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승인 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의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지역정부 차원에서 대비**

○ 한층 누그러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역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사진 1] 코로나19 전용 구급차 관련 앱 홍보물

[사진 2] 코로나19 이동용 선별검사소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ustry/delhi-begins-training-of-health-workers-for-covid-vaccination-drive/79737395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covid-19-how-delhi-will-vaccinate-7102556/

https://swachhindia.ndtv.com/third-wave-of-covid-19-in-delhi-now-under-control-chief-minister-arvind-kejriwal-54478/

https://theprint.in/india/delhi-govt-issues-work-from-home-orders-for-50-of-employees-in-non-essential-services/554012/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govt-cuts-rt-pcr-test-rate-by-a-third-to-rs-800/articleshow/79500297.cms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gadgets-news/delhi-government-launches-app-for-safe-commute-of-covid-19-patients/articleshow/79367169.cms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delhi-govt-calls-out-to-clinics-to-enrol-their-staff-for-covid-vaccination/story-BktlDmdB2Tu6fNOrEZLDDM.html

https://www.livemint.com/news/india/covid-19-delhi-govt-launches-free-large-scale-rt-pcr-testing-van-11606092915764.html

https://www.livemint.com/news/india/covid-19-vaccination-drive-delhi-begins-training-for-3-500-healthcare-workers-11608183530029.html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coronavirus-india-live-updates-december-15-2020/article33333581.ec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州별로 여행 제한 조치 시행

미국 / 사회·복지

미국은 그동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기간에 불필요한 여행 제한을 권고해왔음. 연방국가인 미국은 州별로 서로 다른 여행 제한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면제 및 단축 기준, 코로나19 검사 방법, 제출 서류 등이 州별로 상이한 경우 발생. 미국은 2020년 12월 기준 20개 이상의 州에서 여행 제한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

배경

○ **미국은 2020년 12월 현재 총 2천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021년 1월 현재 누적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섬**

- 사망자는 2020년 12월 기준 총 34만 명 이상, 2021년 1월 기준 총 42만 명 이상
-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

○ **미국은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에 불필요한 여행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여행 제한을 권고했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 제한을 권고
  - 여행을 할 경우 출발 1~3일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 여행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7일간은 비필수 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
  - 여행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간 비필수 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
- 연방국가인 미국은 州정부별로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각 州에서는 서로 다른 여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존재

주요 내용

○ **주요 州별 여행 제한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2020년 12월 기준 조사)**

- 알래스카州
  - 10세 이상의 여행자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출발 전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 여행신고서, 자가격리 계획을 업로드하여야 함
  -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분자진단검사법(Molecular Diagnostic Tests)이어야 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州에 들어올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
  -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 5일에서 14일 사이 2차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공항에서 250달러의 검사비용을 내고 검사해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오는 3~5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함

• 캘리포니아州
- 호텔 및 숙박시설의 경우 타 州에서 오는 여행객은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하여 14일 이상의 예약만을 허용
- 州 내 지역별 여행 제한사항이 달라 확인이 필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10일간의 자가격리를 권장. LA는 16세 이상 모든 여행객에게 캘리포니아의 여행 제한 조치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 부과

• 코네티컷州
- 인접한 뉴저지州, 뉴욕州, 로드아일랜드州에서 온 사람은 제외하고 24시간 이상 머물 예정인 사람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
- 도착 72시간 이내에 PCR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할 경우 자가격리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음. 도착 후 음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격리
-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 부과

• 워싱턴 D.C.
- 고위험 지역에서 오는 24시간 이상 방문객이나 주민은 도착 72시간 전의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 3일 이상 머물 예정이라면, 도착 후 3~5일 내에 두 번째 검사를 받아야 함
- 근교인 메릴랜드州와 버지니아州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외.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양성 환자가 나오면 검사를 요구

• 하와이州
-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
-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싶은 사람은 도착 72시간 이전에 핵산 증폭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州는 최소 25%의 여행자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도착 후 무료로 2차 검사 실시

• 일리노이州
- 일리노이州 차원에서의 여행제한은 없음
- 시카고市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바탕으로 州를 적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구분하여 해당 州에서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나 검사 의무를 차등화해 실시. 적색 지역은 14일간 격리해야 하고, 주황색 지역은 도착 3일 이내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노란색 지역은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에 대한 의무가 없음

- 캔자스州
  - 타 州에서 500명 이상 모인 행사에 참가한 방문객 및 주민은 11일간 자가격리
  - 타 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개인,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은 개인, 크루즈 여행을 한 사람도 자가격리
- 켄터키州
  -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함.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줄일 수 있음
- 메인州
  - 뉴햄프셔, 버몬트를 제외한 州에서 오는 방문객 및 하루 이상 해당 州를 방문한 주민은 10일간 자가격리. 도착 72시간 이내에 PCR 또는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되, 음성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
  - 18세 이하는 동행한 성인이 음성이 나올 경우 면제
- 메릴랜드州
  - 10만 명당 20명 이상의 양성 혹은 10% 이상의 양성률을 기록한 州에서 오는 방문객이나 타 州를 방문한 주민 모두 도착 72시간 이내 혹은 도착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인접 州인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에서 온 방문객이나 주민은 면제
  - 통근 주민, 환승객, 코로나19 전염률이 낮은 州에서 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10세 이상의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10일간 자가격리 또는 도착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함
- 매사추세츠州
  - 통근 주민, 환승객, 코로나19 전염률이 낮은 州에서 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10세 이상의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10일간 자가격리 또는 도착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음성 결과를 받기 전에는 자가격리
  -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여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 부과
- 뉴햄프셔州
  - 인접 州인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州에서 오는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10일간 자가격리
  - 자가격리 7일이 지난 후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해제
  - 인접 州인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방문객은 면제. 이 외 지역은 온라인을 통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묵는지 등 자세한 여행정보를 기록

- 뉴저지州
  -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도착 1~3일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도착 3~5일 후에는 2차 검사를 받아야 함
  - 7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지만 2차 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일까지 격리
- 뉴멕시코州
  - 저위험 지역을 제외한 州를 방문한 모든 방문객 및 주민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 뉴욕州
  - 인접 州를 제외하고 24시간 이상 타 州에 머문 방문객이나 주민은 14일 자가격리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기간 단축 가능
  - 타 州 방문 후 24시간 이내 돌아온 사람은 격리가 필요 없지만, 4일째에 검사를 받아야 함
  - 위반 시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부과
- 오레곤州
  -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14일간 자가격리
- 펜실베이니아州
  - 11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도착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10일간의 자가격리 혹은 음성 결과를 받을 때까지 격리
  - 위반 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 부과
- 로드아일랜드州
  - 州에서 정한 저위험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
  - 그 외에는 도착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음성 결과를 받으면 격리 해제
- 버몬트州
  -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14일간 자가격리
  - 무증상 시 7일째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음성이면 격리 해제
- 워싱턴州
  - 방문객 및 타 州 방문 주민은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영국, 남아프리카 및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을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14일간 격리

○ **2020년 12월 현재 여행 제한이 없는 州는 29개로 조사**

정책 평가

○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州에서도 州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름

- 州별 여행 제한 지역,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19 검사 방법, 자가격리 면제 및 자가격리 기간 단축 기준, 제출 서류 등이 다른 경우 존재
- 州 안에서도 카운티(County)나 市별로 다른 경우 있음

○ 많은 州에서 자가격리를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州가 많음

https://www.nytimes.com/2020/07/10/travel/state-travel-restric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dex.html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96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1월 25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